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10월 27일(금)  
...(음력 9월 13일)...  
Пятница  
27 октября 2023 г.  
№ 41 (12058)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10월 29일에 러시아에서 도로 운송 근로자들의 날을 기념한다.

▲ 성도민 (알베르트 페트로위츠) 운전기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콜로스' 맥주공장에서 25년 이상 일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는 부지런한 일꾼으로 인정을 받은 그는 지난주에 농산업단지 시스템에서 장기간 근면하게 근무한 공로로 러시아 연방 농업부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이예식 기자 촬영)

## 사할린주 보건 분야 인재들에게 사회적 지원정책 확대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시로 의료 인력 유치를 위해 사할린주가 채택한 프로그램이 새로운 규정으로 추가된다. 현재 사할린 지역 국립 의료기관에 의사는 2,661명이고, 그 중 811명은 인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채용되었다. 새로운 사회적 지원 정책은 기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여건을 개선하고, 수혜자의 범주도 확대할 계획이다.

사할린 지역 의료 전문가 유치 및 정착체계를 통해 의료자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향상시키는 과제를 2014년에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설정했다. 그동안 서류상으로 여러 차례 현 상황과 기본적 규정에 개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이뤄졌다. 최근 개정안은 타지역에 공부하러 떠나는 사할린과 쿠릴 학생들에 대한 불공정한 점을 제거하도록 요청했다.

"예전에 국내 의과대학에 입학하려 떠난 사할린의 학생들은 목표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제 우리는 불평등을 제거할 것이다."

새로운 규정은 2014년도부터 사할린주에 일하러 온 모든 사람들에 관해서는 이전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고, 전문적인 표준에 적합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강조했다.

다른 혁신 프로그램들은 처음으로 의료인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인데 이는 전문 의료인들이 주택임대 보상을 받을지, 주 예산을 통해 대출을 받을지 선택하는 것이다. 주택임대 비용 상황은 실제 지출비에 따라 매월 2만5천 루블리 이하로 지급되고, 유즈노사할린스크를 제외되며, 매월 주택임대 비용 상한액은 4만5천 루블리 이하로 책정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으로 상한 금액은 쿠릴열도에도 책정할 예정이다.

"쿠릴열도에서는 간호사 인력 채용 규정이 변경된다. 쿠릴 지역 국립 의료기관에 근무하기 위해 거주하는 간호사와 구급대원에게도 주택임대 비용 상환금을 지급한다. 예전에는 이런 조치를 의사와 의과대학을 졸업한 전문 의료인에게만 제공했었다."고 블라디미르 쿠즈네초프 주 보건부장관이 말했다.

2023년에는 232명의 의사가 사할린주로 들어왔다. 새로운 사회적 지원정책의 도입은 국내 타지역의 전문 의료인을 유치할 뿐 아니라 사할린의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 아빌림픽 > 국가선수권대회에서 사할린의 학생들 4개 상 수상

<아빌림픽> 발달장애 및 장애인 대상 전문 기능에 따른 국가선수권대회에서 4명의 사할린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경기를 치렀다. 사할린의 학생들은 '재봉', '목공예', '도자기 공예', '제과 제조' 부문에서 상을 수상했다고 주 특수교육센터가 전했다.

학생 부문 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학생들은 '재봉' 종목에 폴리나 자야츠, '도자기 공예' 종목에 이미에, '제과 제조' 종목에 알리나 푸지코와, '목공예' 종목에서 세르게이 이린이 은메달을 땀다.

<2023- 아빌림픽> 국가선수권대회 결승전이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가운데 행사는 '고스친의 드워르' 전시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추가로 모스크바의 6개 전문학교가 행사장이 됐다. 경기에 전 러시아 76개 행정자치지역에서 참가자 750명 이상이 대회에 출전한 가운데 49개 전문 종목에서 경기가 진행됐다.

### 새고려신문 2024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한입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46,98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 단신

### 사할린, 영재지역센터 설립

다음 학기에 '시리우스' 교육센터를 모델로 영재센터가 사할린에 설립된다.

여기서 사할린의 학생들은 '과학', '스포츠', '예술' 3가지 분야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사할린주 교육부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 장관이 언급했다.

"과학 방면에 최적의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은 물리, 화학, 생물, 천문학 과목에서 좀더 깊게 연구를 하게 된다. 현대적인 장비를 이용해 학생들은 실험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사할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총체적인 준비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목표를 세웠다."고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 장관이 덧붙였다.

### <안전한 도로> 온라인 올림피아드, 사할린 학생 약 1만5천명 참가

2023년 9월 19일부터 10월22일까지 <안전한 도로> 전 러시아 온라인 올림피아드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도로' 국가기획의 지원 아래 진행되었다. 이에 사할린주에서 1학년 - 9학년생 1만5천여 명이 도로상에서 안전 규칙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발휘했다.

온라인 올림픽은 벌써 4회를 맞으며 매해 갈수록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 참가자 수는 지난해 보다 3천 명 더 많이 참가했다.

### 사할린주 감염병 역학 상황

지난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사할린주의 급성장염 역학상황이 통제 수준보다 높아 불안정했다. 급성장염 환자는 161명이며 그 중 134명이 아동이다. 지난 한 주간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급증해 사할린 지역에서 2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사할린주 소비자 보호청이 전했다.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코로나19 감염 환자는 46명, 그중 2명은 아동이다. 병원성 급성호흡기 질환이 우세한 가운데 88.8%를 차지, 비병원성 폐렴 증상은 11.1%로 집계됐다. 무증상 환자는 2.2%였다. 코로나 19 감염 경증 환자는 48.8%였고, 나머지에게서는 중간 정도의 증상을 갖고 있었다.

### 유즈노사할린스크 공동주택의 약 1500개 출입구 정비

다가구 주택 공공이용 장소의 변경에 따른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총 1700곳의 공동주택 출입구를 정비하고 있다.

전과 같이 공동주택의 외벽, 지붕, 우편함, 안내판을 비롯해 필요에 따라 창틀을 교체하며, 출입구를 수리한다.

"올해 도시의 관리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수리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현재까지 주 예산과 지방 예산의 보조금 지원과 장려금 지원, 관리회사의 자체 자금 덕분에 1,470곳의 출입구 보수공사가 이뤄졌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 도시경제부의 엘레나 리테이키나 부장이 말했다.



# 사할린주 말하기 대회: 우리는 시야와 가능성을 확장시킵니다

지난 20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 학교 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말하기 대회가 개최되었다. 교사와 멘토의 해로 선포한 올해는 흥미롭고 중요한 행사들로 가득차 있으며, 그중 하나로 한국어에 대한 우수한 지식을 발휘한 이 말하기 대회의 '교육은 세상을 연다'는 주제도 우연치 않다.

사할린주 말하기대회는 영재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지식 증진 및 외국어 학습을 위해 매년 개최된다. 대회의 목표와 과제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사의 전문기술 성장을 촉진, 영재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조성, 젊은 세대의 지식과 성취를 장려하고, 교육의 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

해마다 이 대회는 사할린주 정부 지원으로 개최되며, 이번 행사 주관으로는 사할린주 교육부와 사할린 국립대학교가 직접 진행하고, 사할린 한국교육원과 사할린 주한인협회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대회에 참석한 러시아 외무성 유즈노사할린스크 주재 대표실 미하일 실라초브 제3서기, 주유즈노사할린스크 대한민국 출장소 박상태 소장, 사할린 국립대 알렉산드르 사마르다크 총장 대행, 사할린주 교육부 직업교육·근로인재양성·추가사범교육에서의 국가정책실현과의 엘레나 만칠리나 수석 고문, 사할린 한국교육원 정승훈 원장, 사할린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한국어 교육 확립에 대해 이야기하며 대회 참가자들의 성공적 발표를 기원했다.

현재 사할린 지역에서는 정부의 지원과 사할린 국립대 언론·역사·동양학 대학의 동양언어학과 교사들의 활발한 활동에 힘입어 한국어 교육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다양한 수준의 교육기관들에서 실시되고 있다. 한국어 채택학교로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동양김나지아, 제2 리체이, 코르사코브시의 제2, 제4 중학교에서 한국어는 필수과목 또는 선택과목으로 가르치고 있고 추가 교육으로는 돌린스크 아동창작회관과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의 제9 '체부라쉬카'유치원에서 배울 수 있다. 크라스노



고르스크 같은 경우 사할린주한인협회가 운영하는 한국어반이 있다. 그리고 사할린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 학습을 위한 무료 강좌를 진행한다.

흥미롭게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대 상황에서 두 가지 외국어에 대한 지식과 이러한 언

어로 의사 소통하는 능력은 근로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대인 이미지의 속성 중 하나가 되어 사교성, 관용, 자신감과 같은 개인의 특성을 형성하게 한다. 여러 문화의 교차점에서 형성된 사람이 다른 세계관을 가지게 되고, 사회화의 지평이 크게 확장되며, 완전히 새롭고 종종 다른 문화적 콘텐츠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더는 비밀이 아니다.

2023년 대회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돌린스크, 크라스노고르스크 등 사할린 지역의 교육기관, 스포츠 및 창의적 협회를 대표하는 학생 100여 명이라는 기록적인 수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입증하고자 모였다. 이번 대회에는 '토르나도'스포츠클럽, 사할린주 씨름협회,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사물놀이 팀의 학생들이 처음으로 참가했다.

대회의 일환으로 주최 측은 '유치원-학교-대학'의 창의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바로 '체부라쉬카'유치원생들의 시 낭독이 참가자와 손님들에게 뛰어난 한국어 시연을 보여주며 발표의 한 예로서 기준이 되었다고 강조하고 싶다.

2023년 대회는 새로운 형식으로 개최되어 참가자 수를 몇 배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방향의 대표자들이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참가자 전원은 11개 팀으로 나뉘어 지적 대결과 창의적 경쟁이라는 두 가지 부문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지적 대결은 전통요리, 현대음악, 현대문화, 교육과 학문에 관한 속담과 명언, 국가에 대한 일반정보 등 5문제씩 하는 5라운드로 진행했다. 창의적 대결은 한국어 시낭송이었다. 이날 학생들은 훌륭하게 발표를 했다.

모든 수상자에게는 감사장과 귀중한 선물을 수여했으며, 모든 참가자와 특별 부문 수상자에게는 사할린주 교육부로부터 증서를 수여했다. 주최 측에서는 지도교사들을 위한 감사장과 선물을 준비했다.

(사할린국립대학교 제공)  
(이예식 기자 촬영)

## 이 모 저 모

### <야간 마라톤대회>에 사할린 주민들 1천 명 이상 참가

10월 20일(금) <야간 마라톤대회>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된 가운데 남녀노소 1천여 명 이상이 참가했다. 대규모 마라톤 대회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주도로 조성된 '인구 통계학' 국가기획 중 '스포츠는 생활의 표준'이라는 연방 기획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고 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영예 광장에서 출발하여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 및 관광단지의 중간역으로 이어지는 아스팔트 도로를 따라 달리며 2.8km의 코스를 완주했다.

40분 만에 코스를 완주한 참가자들은 이고리 마르티노브가 선사하는 상당히 큰 상품 추첨에 참가했다. 행사에 앞서 받은 마라톤 참가자들에게 주어지는 번호표가 주민들에게는 추첨을 위한 티켓이 되었다. 완주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아이폰 15, 아이폰 14, 무선 이어폰, 소니 플레이스테이션(게임기), 로봇 청소기 등 다양한 상품을 선사했다.

주 스포츠 훈련 센터의 체육 행사 및 스포츠 조직, 진행 부장인 니키타 그리그은 <야간 마라톤대회>는 사할린 지역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행사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2년간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한 행사의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행사 조직위원회에 들어온 기부금 전액은 9월14일 화재가 발생한 코르사코브의 '호보스틱' 동물보호소를 돕기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 Bolee ты́сячи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вышли на старт «Ночного забега»

«Ночной забег» проше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20 октября. Участие в нем приняли более 1000 человек, включая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Масштаб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организованы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порт — норма жизни» нац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созданного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частники стартовали с площади Славы. Маршрут проходил по асфальтированной дороге, ведущей до средней станции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Именно там бегуны и финишировали, преодолев при этом 2,8 км.

Те, кто преодолел дистанцию за 40 минут,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большом розыгрыше призов от Игоря

Мартынова. Билетом для сахалинцев стал стартовый номер, полученный перед мероприятием. Среди финишеров разыграли iPhone 15, iPhone 14, AirPods, Sony Playstation 5, роботы пылесосы и другие призы.

Как отметил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организации и проведения спортивных и физ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Никита Гриник, «Ночной забег»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регионе. Несмотря на двухлетнюю паузу, все задуманное удалось воплотить.

Все собранные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со взносов организаторы направят в помощь корсаковскому приюту для животных «Хвостик», где 14 сентября случился пожар.

### 연초부터 9천 명 이상의 사람들, 유즈노사할린스크 관광차 방문

문화·관광 센터가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과 방문객을 위해 새롭고 흥미로운 방안을 개발하는 가운데 센터 건물에서 새로운 전람회를 열기 시작했다.

전람회는 지금의 유즈노사할린스크에 탄생한 첫 마을인 블라디미로브카의 모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대규모 작업은 도시의 날에 맞추어 완성되었다.

현재 블라디미로브카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역사를 주제로 하는 풍성한 관광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문화·관광센터의 안드레이 수호노스 센터장은 사진과 고문서로 이뤄진 작업이 몇 달간 계속됐다고 밝혔다.

"최대한 역사적 고증을 입증하기 위해 학자들의 자문을 구했다. 앞으로 '주민'들의 수를 늘리고, 볼 꺼진 집들을 추가로 설치해 전시할 계획이다. 조만간 작업이 마무리 되어 '목공 작업'이라는 새로운 또 하나의 공간이 방문객들을 반기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목공예 도구들에 대해 보여주며, 목공예 덕분에 우리의 사랑스런 유즈노사할린스크가 건설되었음을 설명할 예정이다."라고 수호노스 센터장이 말했다.

현재 문화·관광센터에는 10개 정도의 전람 부스가 제작되었다. 이는 도심을 중심으로 한 '개괄적 전망',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전설적인 러시아 항해자 및 연구가에 대해 알 수 있는 '바다의 운명', 남 사할린 해방의 역사와 소비에트 연방의 영웅들에 대한 '승리에서 영광까지' 등 관람 코스가 마련돼 있다.

또한 문화·관광센터의 전문가들은 웨스토츠키 지역의 '라구쉬카' 바위 여행을 조직하고, 학교들에서 직접 향토역사 퀴즈를 진행하고 있다.

### Bolee 9000 человек побывали на экскурсиях по Южно-Сахалинску с начала года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разрабатывает новые интерес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овая экспозиция начала свою работу в здании Центра.

Основой экспозиции стал макет Владимировки — первого поселения, которое возникло на месте нынешнего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асштабную работу выполнили ко Дню города. Теперь она стала значимым элементом богатой экскурсионной программы, которая посвящена истории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Директор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Андрей Сухонос рассказал, что работа с фотографиями и архивом длилась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Консультировались с учеными, чтобы достигнуть максимальной исторической точности. В дальнейшем планируем дополнить экспозицию подсветкой домов и большим числом «жителей».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доведем до конца работу и порадуем гостей еще одним новым пространством под названием «Столярные мастерские». Покажем и расскажем о ручных инструментах по дереву. Тех, с помощью которых строился наш любимый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сообщил Сухонос.

Сейчас в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ом центре разработано уже около десяти экскурсий: это и «Обзорная» по городу, и «Морские судьбы» - на ней можно узнать о легендарных российских мореплавателях-исследователях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а также маршрут «От Победы к Славе» об истории освобожд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подвигах Героев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Также специалисты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организуют выезды на останец Лягушка в районе Восточки и проводят краеведческие квесты прямо в школах.

### 쿠릴 곰, 쿠릴열도에서 마을 배회

이투루프 섬의 레이도워 마을에 몸집이 큰 곰 한 마리가 돌아다녀 '크라스니 마야크' 사회정치 신문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곰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장면에서 곰은 거리를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고, 그 뒤로 자동차와 송아지 두 마리가 뒤따랐다.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해칠까봐 염려했다.

### Крупный медведь прогулялся по селу на Курилах

В селе Рейдово на острове Итуруп разгуливал крупный медведь. Видео с косялами в своем Telegram-канале опубликовала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Красный маяк». (7면에 계속)



## 일본인들이 사할린한인들에게 저지른 범죄

〈사할린한인 역사 정의회복을 위한 토론 마당〉기획의 일환으로 지난 20일(금)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두 번째 모임이 있었다. 이날 사할린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환영하여 과거 연구의 중요성과 의의를 언급할 뿐만 아니라 주한인협회가 역사적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참석자들에게 다짐했다.

〈토론 마당은〉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매우 중요한 일제 역사의 사실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정된 행사의 주요 의제는 일본이 아직 지불하지 않은 가라후토 우체국 은행에 사할린 한인의 우편 저금 문제이다.

이번 모임에서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부장 진 율리아 역사학자는 '제2차 세계대전 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에게 저지른 범죄'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일본인들에 의해 한인 민간인 살해와 관련된 기밀해제의 문서를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조명하는 자료는 현재 사할린주 향토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토론 마당〉기획의 중요한 구성 요소는 디아스포라 대표자들의 참여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주최 측이 강조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사할린 한인 역사의 비극적인 페이지에 대한 일본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었다.

〈포베다〉기념단지 유리 필리펜코 관장은 이 강연에 대해 특별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일본의 '배타성'과



공격적인 '사무라이주의'의 깊이를 우리가 종종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결국 남부 사할린에서 한인들을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런 참담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본 민족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토론 마당'은 사할린주 두마,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보관부, 사할린주 향토 박물관의 지원을 받아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개최한다. 다음 강의는 11월 3일(금)에 진행된다. 사할린 주 향토박물관 유리 알린 관장은 '도요하라 우체국에 있는 사할린 한인 저금: 문제 해결 가능성'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본사 기자)  
(이예식 기자 촬영)

## 불멸의 기억

특수군사작전수행 중 전사한 두 명의 사할린의 병사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추모 게시판 개막이 유즈노사할린스크 1호 리찌이 학교에서 거행됐다고 사할린주 교육부가 전했다. 김 알렉산드르와 드미트리 폴란스키 장병에게 사후 용맹 훈장을 수여했다.

추모비 개막에 친지들과 동료 장병들이 참석했다. 사할린주 교육부 아나스타시야 키르테와 장관은 추모사를 전하며 "안타깝게도 이들은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었지만 그들에 대한 기억은 유즈노사할린스크 1호 리찌이 학교 벽에 살아있을 것이다."

현재 유지원과 학교, 기술전문학교에서 격려 편지와

소포, 동영상엽서 등으로 참전 중인 장병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23호 학교에도 100번째 추모의 책상을 설치했다. 이는 작은 것이지만 조국을 수호했고, 지금도 수호하고 있는 병사들을 공동 지원하는 헌정 기념이다."라고 말했다.

추모 게시판에는 전몰 병사의 사진, 약력, 참전병의 영웅적 행적이 기록돼 있다.

부소대장 김 알렉산드르 복고노위츠는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좌표로 포격을 요청해 적을 격멸했고, 드미트리 폴란스키는 러시아 연방 정예부대 '타이푼'에서 복무하다 임무 수행 중 전사했다.

## 사할린 국립대학교 개교 25주년 맞아 교수 표창

사할린 국립대 개교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일(금) 사할린 국립대의 학자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어 명예교수를 비롯한 학장, 학자, 정부기관 및 사회단체의 대표, 사할린 국립대 출신의 원로, 사할린 국립대 직원들 50여 명이 참석했다.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축사를 전하며 "친애하는 여러분, 대학 개교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가장 어려운 과제가 놓여있는데 이 과제들은 여러분 없이 단순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기술적인 자주성을 보존하고, 아이티(IT) 분야의 고급 인력 양성, 과학적 행사 시행, 생활 전반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 도입을 목표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산시설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계공업학교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 방면에서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탄탄한 과학적 기반을 토대로 실현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고와 성과를 향한 집중력에 감사드리며, 하시는 일이 잘 되길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사할린 국립대의 알렉산드르 사마르다크 총장 직무대행은 "우리 대학은 75년 전에 설립된 소규모 사범대학에서부터 지금까지 성장해왔다. 정통 대학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사할린주가 아주 다양한 분야와 과학적 기반의 개발에 대한 전문가를 요청하여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석유·가스산업과 건축, 행정 및 기타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대학의 교직원들이 이러한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직원들과 함께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것이 대학에 있다. 특별히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높은 목표를 설정한 교수와 연구자들을 생각한다. 이 회의에 직접 참석한 주지사에게도 감사의 말씀



을 드리며, 우리 대학의 교직원을 대표해 대학을 지원하고, 대학의 발전에 참여해 주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주 국립대 언어학, 역사 및 동양학 대학의 학장 임 엘비라에게 명예 표창장을 수여했다.

임 엘비라 학장은 "오늘은 제 직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한때 이 강의실에서 대학생으로서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오늘 이렇게 높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26년간 이곳에서 일해왔고, 재개편 전에 입사했습니다. 대학은 나의 둘째 집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지식을 배웠고, 친구를 사귀며, 듣고, 따르며 일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표명했다.

이외에도 사할린 국립대 교육 및 심리학부의 교수이론 및 방법, 교육학과 류드밀라 무만체와 부교수가 감사장을 받았고, 기념식의 일환으로 대학 교직원들에게 명예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하고, 40년 이상 대학에서 근무한 교직원과 교수들에게 총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날 개교 2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아르쉴라 라자레브 관광부 장관과 스웨틀라 나미로와 유즈노사할린스크 교육국장, 드미트리 스메칼로브 주 청년사업청장이 참석했다.

(사할린 주정부 프레스센터)

## 사할린한국교육원 30주년 맞아

# 한-러 우호 증진의 3년

## 전 사할린한국교육원장 회고록

### 제7대 사할린한국교육원장 장원창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할린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제7대 사할린 한국교육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장원창입니다. 사할린 한국교육원 30주년을 맞이하여 새고려신문이 허용한 지면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벌써 교육원을 떠난 지 6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할린 한국교육원이 COVID-19 사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육원 창립 30주년을 맞이한다는 소식에 매우 감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원 개원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30주년 행사를 준비하시는 정승훈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물질양면으로 교육원을 지원하고 사랑해주신 사할린 한인회 동포 및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할린 한국교육원은 아시아시피 세계 여느 교육원과 다른 역사적 사명과 동포애를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조국으로 귀환을 못한 채 한 많은 타국생활을 해야 했던 사할린 한인동포분들께 항상 죄스럽고 빛진 마음으로 교육원에 근무했었습니다.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행사를 하면서도 항상 밑바닥에는 사할린한인 이주 역사의 특수성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현재의 조국인 러시아 정부와 주민들과도 우호 증진을 통해 한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도움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기억나는 행사는 2014년부터 내리 3년간 이어간 '한-러 우호축제'입니다. 이 행사는 한국교육원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사공장택)와 사할린한인회(임용군), 사할린한국교민회(현덕수)가 공동으로 한국 측으로 참여하였고, 러시아 주정부와 함께 개최한 행사로 2014년에는 한국의 세계적 성악가 조수미와 KBS관현악단이 참가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한국의 문화대통령이라는 조수미의 공연은 한국 가곡의 자존심을 알린 공연으로 사할린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공연이었음을 자부합니다.

직원 2명(김순자, 김마리나), 출장소의 이선영 행정원과 준비하는 동안의 고통과 수고도 세계적 스타의 열연과 동포들과 현지 주민들의 열광으로 깨끗이 치유되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제 공직생활에서 최고의 행사였음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대폭 늘어나 국립국제교육원과 사할린국립대와 함께 개최한 한국 대학교 유학박람회도 1,000여 명이 참가하는 큰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일 중의 하나는 사할린 주립미술관에 복한 미술품만이 소장되어 있었는데 2015년 한-러우호행사 후속으로 남한 미술품을 동시에 전시하는 공간을 만들어 남북균형을 이룬 일입니다. 여기에는 광주광역시 '(사)임방울국악진흥회(김중채이사장)'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임방울진흥회는 국악공연과 김치만들기 등 우리의 전통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컸습니다.

본인 재임기간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도 노력하여 당시 사할린한인노인회(김홍지)와 함께 청소년역사캠프, '미즈호 마을의 비극' 번역본(장하나 역) 발간 등 사할린 한인의 이주사와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북돋았습니다.

한국어 말하기대회 등에 사할린 국립대학교한국어과(임 엘비라), 각종 행사 홍보에 새고려신문(배순신), 우리말방송국(김춘자), 국악교육에 에트노스 예술학교(신 율리아)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간의 한국교육원 활동을 사할린한국교육원 25주년을 기념하여 본인 임기말에 '사진으로 보는 사할린한국교육원 25년사'를 발간하여 역대 교육원장님들의 활동 상황을 정리한 것도 뜻깊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본인은 3년간의 공직 생활과 함께 사할린한인들과도 깊은 교류를 하였습니다. 특히 코르사코프 한인회(이태준)와 함께한 여가들은 타국생활의 객교를 푸는 데 큰 힘이 되었기에 지면을 활용해 감사와 안부를 전합니다.

본인은 이제 공직 생활을 마치고 러시아 첼랴빈스크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의를 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활동의 근저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방의 섬 사할린에서 3년간의 생활이 마력처럼 저를 이끌고 있는 듯합니다.

시절의 무상함으로 다시 만나기 어려운 한인동포들에게 큰 안부를 전하면서 언제나 여러분의 가슴에 제가 남아있고, 저의 가슴에 여러분들이 남아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할린한국교육원과 사할린한인 동포 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Из фондов СОХМ

## Корейская каллиграфия (5)

Пак Хен Бо - один из старейших мастеров в современном искус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верженец направления мунинхва, принадлежит поколению, чье творческое становление выпало на десятилетие 1960-70-х. Безусловно, это был период актуализации поиско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творческого почерка и осознания своей роли в искусстве. Гармоническое слияние рационального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го) и поэтического начал отличает летний пейзаж «...мы плывём по реке».



Пак Хен Бо (1935 г.р.)  
«... мы плывём по реке». 2016 г.  
Бумага, тушь, водяные краски. 58,5x95,5; 65,5x108  
Поступление: дар автора, 2016 г.  
КП-10232 Ж/в-1436

*В ночь полнолуния мы плывём по реке...  
Вот-вот в наших чашах с вином  
Серебристый заплещется свет.*

(Перевод Романа Хе)

Художник не является автором текста, но становится выразителем традиции мунинхва, особенностью которой было стремление передать в рисунке настроение поэтических строк.

В лирической композиции передан знакомый классический сюжет любования луной. Одинокие фигуры рыбаков в лодке или сидящие на берегу реки ученые в лунном свете заменены здесь изображением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в узнаваемых современных одеждах. Традиционный сюжет хранит в себе тысячелетний духовный опыт, давая современному художнику пищу для вдохновения и современного осмысления. В работе Пака поэтическая содержательность правой части композиции уравнивает ее левую часть, представленную откровенно абстрактной тушевой заливкой, что противопоставляет и примиряет правила и стили и утверждает новую эстетику. В сложной метафорической гармонии сопоставления светлого и темного начал (мужского и женского инь-ян) видится традицион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художника о единстве мира и по сути являет собой современную модернистскую концепцию классического жанра сансухва (горы-воды).

Хай Ок Дя, гл.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СОХМ

## Увековечили память

В лицее №1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увековечили память двух сахалинцев, героически погибших при выполнении служебных обязанностей 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Александру Киму и Дмитрию Полянскому присвоены ордена Мужества, посмертно.

На открытии памятных стендов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близкие, друзья и сослуживцы бойцов. Слова поддержки выраз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К большому сожалению, им не удалось вернуться живыми в свои семьи, но память о них будет жить в стенах Лицея №1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годня детские сады, школы и техникумы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ют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на передовой: письмами поддержки, посылками, видеопоздравлениями. Недавно, в школе №23 мы открыли Парту Героя, которая стала сотой по счету. Все это, безусловно, пусть небольшой, но вклад в общую поддержку тех, кто защищал и продолжает защищать нашу Родину, подчеркнула министр.

На памятных стендах изображены фото, биография и героический путь бойцов. Заместитель командира взвода Александр Ким, попав в окружение, вызвал огонь по своим координатам, тем самым уничтожив противника. Дмитрий Полянский служил в отряде особого назначения «Тайфун» Росгвардии, погиб при исполнении служебных обязанностей. Стенды в память о сахалинских героях установили в самом проходимом месте - в холле лицея.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Конкурс на лучшее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ы расширяем горизонты и возможност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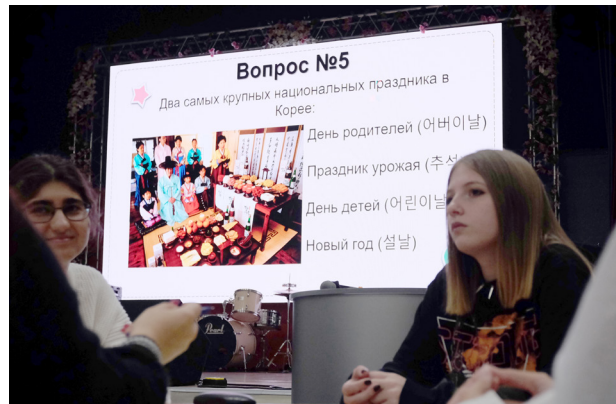
20 октября 2023 года в стенах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шел областной конкурс на лучшее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разование открывает мир». Тема конкурса была выбрана не случайно, ведь 2023 год уникален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ъявленный Годом педагога и наставника, он наполнен интересными и значимыми событиями, одним из которых стал конкурс на лучшее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Областной конкурс на лучшее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оводится каждый год в целях выявления и поддержки одаренной молодежи, пропаганды знаний, изуче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Цели и задачи конкурса: повышение рол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стимулирование рост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педагогов; создание оптимальных условий для выявления и поддержки одаренной молодежи; пропаганда знаний, достижений, повышение престижа образования у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Ежегодно конкурс проходит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е проведение конкурс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Сахалин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с участием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Почетными гостями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конкурса стали третий секретарь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МИД России в город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Михаил Анатольевич Силачев, гла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 Владивосток Пак Сан Тхэ,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рек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евич Самардак, ведущий советник отдела ре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в сфер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одготовки рабочих кадров и ДП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нчилина Елен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Чжон Сынхун, президент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Сегодн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активной работе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афедры восточной филологии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едется в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разного уровня, начиная с учреждений дошкольной ступени и заканчивая вузом.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зучается и как обязательный предмет и как факультатив в МАОУ Восточная гимназия, МАОУ Гимназия № 2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МАОУ Средняя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школа № 2 и МАОУ Средняя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школа № 4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МБОУДО Дом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г. Долинск, МАДОУ №9 «Чебурашка». Кроме того, в селе Красногорск существует специальный класс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и местном отделе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Бесплатные курсы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оходят и в Центре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Интересно, что количество желающих изуча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растет. В современных условиях знание двух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и умение общаться на этих языках не только придает большую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ь на рынке труда, но и становится одним из атрибутов имиджа современного



человека, способствующим формированию определенных качеств личности, таких как коммуникабельность, толерантность, уверенность в себе. Не секрет, что человек, сформировавшийся на стыке нескольких культур, обладает другим мировосприятием и мировоззрением, значительно расширяются горизонты социализации, в круг его интересов вовлекаются совершенно новые, зачастую несхожие культурные пласты.

Конкурс 2023 года собрал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желающих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свои зн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 более 10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спортивных и творческих объедине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орсаков, Долинск, Красногорск. Впервые участниками конкурса стали воспитанники спортивного клуба «Торнадо»,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ы Ссирым,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Ансамбля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щиков «Ханьль» при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В рамках конкурса организаторам удалось выстроить систему твор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етский сад-школа-вуз». Именно воспитанники до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Чебурашк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участникам и гостям прекрасное исполнение стихотворений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тав своего рода эталоном для последующих выступлений.

Конкурс 2023 года проходил в новом формате, который позволил не только увеличить число участников в несколько раз, но и собрал в этом зал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з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образование, культура, спорт. Все участники разделились на 11 команд и проявили себя в двух турах: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ая битва и творческое состязание.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ая битва – 5 раундов по 5 вопросов: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хня, современная музыка, современная культура, пословицы и поговорки об образовании и учености, общ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стране. Творческий тур – декламация стихов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се призеры получили дипломы и ценные подарки, а все участники и победители специальных номинаций – грамоты от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и подарки для педагогов.

(Материал предоставлен Институтом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Фото: Ли Е Сик)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Президент РК участвовал в открытии Выставки садоводства в Дохе

24 октября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присутствовал на открыт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авильона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е садоводства в Дохе, столице Катара. Выставка, проходящая под девизом «Зелёная пустыня, лучшая окружающая среда», является первым подобн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проводимым в пустынной зоне. В ней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более 80 стран.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павильоне оборудован открытый сад, оформленный в корейской тематике, и выставочный зал «умного»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который знакомит с достижениями РК в данной области. Юн Сок Ёль встретился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желающими экспортировать продукцию «умного»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 Ближний Восток. Ранее в тот же день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прибыл в Катар с двухдневны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визитом, цель которого – расшир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25 октября прошли переговоры президента РК с эмиром Катара, шейхом Тамимом бен Хамадом Аль Тани. В тот же день он присутствовал на открытии бизнес-форума, в котором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трёхсот лидеров деловых кругов двух стран. Юн Сок Ёль – первый президент РК, посетивший Катар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визитом.

## Лидер оппозиции вернулся к исполнению своих обязанностей

23 октября Ли Чжэ Мён вернулся к исполнению обязанностей лидера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после 24-дневной голодовки и нескольких недель лечения в больнице. Он объявил голодовку в знак протеста против политики нынешне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18 сентября его перевели в больницу из-за резкого ухудшения состояния здоровья. С начала октября Ли Чжэ Мён проходил реабилитацию после болезни в домашних условиях. Выступая на заседании Высшего совета партии, он заявил, что экономика и безопасность страны находятся под угрозой из-за некомпетентности и без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Ли Чжэ Мён призвал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отправить в отставку кабинет министров, который из-за своей некомпетентности допустил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ошибки в управлении страной. Он потребовал от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полностью пересмотреть методы упра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делами и выразил уверенность в победе оппозиции на предстоящих в апреле 2024 года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окуратура рассматривает обвинения в отношении Ли Чжэ Мёна по трём пунктам. Это нарушение закона о выборах во время президентской кампании 2022 года и два обвинения в коррупции во время пребывания на посту мэра города Соннама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с 2010 по 2018 год. Ли Чжэ Мён отрицает все обвинения, называя их политической мстостью действующего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своему сопернику на выборах.

##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договорились улучшить парламентскую культуру

Соперничающ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РК договорились улучшить парламентскую культуру, прекратив взаимную критику. Соглашение было достигнуто 24 октября на встрече лидеров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и главно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Тем самым депутаты признали, что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тратит больше времени на политические споры, чем на выполнение своих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обязанностей. Как сообщил журналистам лидер парламентской фракции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Юн Чжэ Ок, достигнуты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не вывешивать плакаты с критикой оппонентов как в зале пленарных заседаний, так и на заседаниях постоянных комитетов. Кроме того, депутаты обещали воздержаться от взаимных словесных оскорблений и не перебивать тех, кто выступает на заседании.

## 40% иностранцев, прибывших в РК на учёбу, становятся нелегалами

Почти 40% иностранцев, прибывших в РК по визе D-4 для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евратились в нелегальных иммигрантов. Как сообщили 10 октябр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июня текущего года, 25.898 иностранцев, или 39,9% из прибывших в РК по визе D-4, находятся в стране нелегально. Это иностранцы, чей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в РК завершился, и их местонахождение неизвестно.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нелегалов, въехавших по визе D-4, составляют граждане Вьетнама – 22.760 человек.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граждане Узбекистана – 1.054 человека и Монголии – 820 человек. Нелегальными иммигрантами стали также 27,3% иностранцев, прибывших в средние специальны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по визе D-2-1. Среди обладателей визы бакалавра D-2-2 доля нелегалов составила 8,4%, среди учащихся в магистратуре по визе D-2-3 – 2,9%, а среди аспирантов по визе (D-2-4) – 0,3%. Данная ситуация требует пересмотра политики выдачи учебных виз.

(RKI)

## В рамках «Дискуссионной площадки» представлен анализ рассекреченных документов по убийствам мир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на Карафуто

Проект «Дискуссионная площадка по вопросам историческ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правлен на выяснение фактов истории японского периода, которые чрезвычайно важны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Главная тема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 проблема денежных вклад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Почтовом банке Карафуто, которые Япония не выплатила до сих пор.

20 октября состоялось втор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екта.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выступила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Она отметила не только важность и значимость изучения нашего прошлого, но и заверила слушателей, что РООСК приложит значительные усилия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сторическ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Центральное место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было отведено лекции историка, сотрудник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Юлии Ивановны Дин «Преступления японцев против корейцев во врем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Юлия Дин представила анализ рассекреченных документов, которые касались убийств мир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о стороны японцев. Материалы, которые позволили пролить свет на эти трагические события, хранятся в архиве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Важ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проекта «Дискуссионной площадки» является участие в ней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иаспоры. Имен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услышать их голос и был задуман проект. На дан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каждый присутствующий смог сам оценить меру японск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трагические страницы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собое мнение о теме лекции вы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беда» Юрий



Анатольевич Филипенко. Он справедливо указал на то, что мы зачастую не знаем и не понимаем глубину японского чувства «исключительности», агрессивного «самурайства», которое и привело в итоге к тому, что корейцев стали повсеместно уничтожать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Однако нашему обществу необходимо задуматься об этой особенности японской наци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повторения страшных событий.

«Дискуссионная площадка» проводится РООСК при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Следующая лекция пройдет 3 ноября. Перед слушателями выступит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Юрий Юрьевич Алин с темой «Вклад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почтовом банке Тоёхары: возможность раз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Наш корр.  
Фото Ю. Алина

## Сеульская оборонная выставка ADEX-2023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 большие амбиции Южной Кореи в сфере экспорта вооружений

17 октября на Сеульском военном аэродроме, расположенном в пригород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лицы городе Соннам, начала работу 14-я Сеульск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аэрокосмическая и оборонная выставка ADEX-2023. В ходе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зрители во время приветственных пролетов впервые смогли в действии увидеть новый корейский истребитель KF-21, а также прибывший на выставку американский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бомбардировщик B-52, истребители-невидимки F-22 и другие самоле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эксперт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е скрывают, что нынешний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й размах мероприятия демонстрирует амбиции Сеула по превращению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в одного из четырех крупнейших экспортеров оружия в мире.

К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ADEX-2023 уже з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до нее было приковано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как экспертов, так и обычной публики. И дело не столько в реч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я и в заявленном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м для истории страны масштабе оборонного салона", сколько в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й "воздушной части" церемонии. Сразу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все заявленные от организаторов "изюминки" были показаны.

Сначала состоялось показательное авиашоу от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илотажной группы Black Eagles и их коллег из Австралии, которые постарались удивить зрителей как синхронностью полетов, так и эффектными фигурами высшего пилотажа.

Когда "воздушный цирк" закончился, то настал черед нашпигованного "гвоздями программы"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го пролета совместн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й боевой авиагруппы". Вот как раз в ее составе и были два главных "нюсмейкера" ADEX-2023 - это находящийся еще в процессе испытательных полетов новейши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истребитель KF-21 и американский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бомбардировщик B-52, способный нести ядерное оружие. Что касается KF-21, то это был его первый публичный дебют, когда он выполнил на глазах зрителей ряд маневров. Напомним, что разработка этого истребителя поколения 4++ "с элементами невидимости" произведена корейским авиаконцерном Korea Aerospace Industries (KAI). В проекте также участвует и Индонезия. Сеул намерен произвести более сотни таких истребителей, надеясь также на его экспорт в третьи страны.

Американский "стратег" B-52 проследовал на небольшой для него высоте в 400-500 м, чтобы его смогли получить разглядеть зрители. Про прибытие этого

самолета США в последние дни немало вспоминали потому, что это стало первым случаем, когда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бомбардировщик США впервые приземлил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До сих пор "стратеги" США неоднократно бывали в воздуш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Южной Кореи, но неизменно отбывали без посадки обратно на аэродромы постоянн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Как сообщили корейские СМИ, B-52 во время нахождения в РК находится на базе ВВС Южной Кореи недалеко от города Чхончжу, хот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на аэродроме ADEX-2023 его увидеть нельзя.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помимо собственно участия в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выставки прибытие B-52 стало демонстрацией сил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а также показ единства американо-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оборонного альянса.

Кроме того, в авиацион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американские истребители пятого поколения F-22, истребители F-16, F-15 K, сверхзвуковые тренировочные самолеты T-50 и самолет-разведчик U-2.

В ходе своей речи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военн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для развит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и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и страны. Он также пообещал и впредь укреплять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й альянс с США в целях нейтрализации любых угроз.

Наверное,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эпитетов, который можно услышать в адрес нынешней Сеульск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эрокосмической и оборонной выставки ADEX-2023, является "беспрецедентная по размаху".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тся раз в два года, начиная с 1996 г., являясь 14-м по счету, н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акого количества участников, гостей и - самое главное - демонстрируемых видов вооружений не было.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организаторов ADEX-2023, в выставк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550 авиационных и военно-промышленных компаний из 35 стран (для сравнения в предыдущей ADEX-2021 участвовали 440 компаний из 28 стран), которые подготовили 2320 экспозиций и выставочных стендов на общей площади 250 тыс. кв м.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демонстрируется 100 видов оружия и боевой техники (в 2021 году - 60). Ожидается, что ADEX посетят около 300 тысяч гостей (в 2021 г. - 120 тысяч), включая 114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из 55 стран (в том числе девять министров обороны - из Малайзии, Австралии, Ирака и пр., и начальники штабов ВВС 14 государств).

(Окончание на 6-ой странице)



## Сеульская оборонная выставка ADEX-2023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 большие амбиции Южной Кореи в сфере экспорта вооружений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5-ой странице)**

Как и можно было предположить, особый акцент сделан именно на демонстр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идов оружия и боевой техники. Помимо уже упомянутого истребителя KF-21 на выставке можно увидеть очень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видов корейского оружия, включая уже поставляемые за рубеж боевые танки K-2, БТР K-21, САУ K-9, легкие штурмовики FA-50, образцы систем ПВО, ПРО, стрелковое и прочее оружие. Среди зарубежных новинок эксперты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на то, что США впервые привезли для показа в Корею новейший самолет радиоэлектронной разведки EA-18G Growler, который обычно базируется на авианосцах США.

Исторический размах оборонный салон ADEX-2023 получил не случайно. Южная Корея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стремительно стала выходить на первые строчки мировых экспортеров вооружений, с выгодой для себя воспользовавшись образовавшимся в основном в странах НАТО дефицитом вооружений, который стал следствием широкомасштабной помощи Киеву. Это пробел сейчас часто и восполняют оружие и техника, а также боеприпасы с маркировкой "Сделано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Безусловно, что здесь особенно выделяется сотру-

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е ВПК между РК и Польшей, где суммы контрактов превышают 10 млрд. долларов, хотя, конечно, помимо рынков стран НАТО Южная Корея теперь пытается заключить или уже заключила контракты на поставки продукции ВПК в страны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Латинской Америки, Индии и др. В этих регионах корейская техника бросает вызов главным лидерам сферы мировых вооружений, включая США, Россию, Францию и другие.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зарубежных источников, только в прошлом 2022 г. экспорт южнокорейской во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составил рекордные 17,9 млрд. долларов,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в рекордные в мире темпы роста поставок.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оставило себе цель выйти к 2027 г. на позиции четвертого в мире экспортера оружия, застолбив за собой не менее пяти процентов рынка вооружений планеты. Эти свои цел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ПК РК не скрывают в ходе ADEX-2023, наоборот подчеркивая их.

По словам независимых экспертов, достоинством Южной Кореи как производителя оружия является наличие широкой линейки наименований продукции по всем направлениям, включая бронетехнику, артиллерию,

системы ПВО, ПРО, самолеты - от истребителей и вертолетов до беспилотников, а также подводные лодки, боевые корабли и корабли поддержки, новейшие образцы стрелкового оружия, экипировки, транспортные системы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Все, или почти всё, Сеул готов продать за рубеж.

Стоит признать, что мощная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ая база, высочайший уровень внедрения новейших технологий, включая роботов и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умение быстро и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обеспечивать необходимые заказчику объемы поставок, а также способность наладить качественное постпродажн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позволяют утверждать, что РК вполне может достичь своих целей, оказавшись уже через пять лет в числе главных лидеров экспорта оборонной продукции, уступая лишь, если верить планам РК, только США, России и Франции по части объемов продаж оружия в мире.

Стартовав во вторник 17 октября, 14-я Сеульск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аэрокосмическая и оборонная выставка ADEX-2023 продлилась шесть дней до 22 октября включительно. Первые четыре дня были отведены для эксперт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ПК, СМИ, специально приглашенных гостей, официальных делегаций и лиц. В этот период помимо демонстрации техники было запланирован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семинаров, форумов и прочих мероприятий для тех, кто так или иначе связан с ВПК. В субботу и воскресенье выставка была открыта для посещения обычной публик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 Почти на неделю раньше срока начнется бетонирование основания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ахГУ

4 ноября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начнется бетонирование основания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ахГУ – объекта, который станет сердцем кампуса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СахалинТех. Работы стартуют почти на неделю раньше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го. Об этом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ообщил на встрече с руководством и сотрудниками университета. 20 октября они отметили 25-летие создани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В стенах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остояло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заседание Ученого совета.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50 человек – почетные профессора, заведующие кафедрами, ведущие уче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етераны СахГУ и сотрудники остров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25-летием университета! Сегодня перед нами стоят сложнейшие задачи, решить которые без вас просто невозможно.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нацелил нас на сохранени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подготовку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адров в сфере IT, реализацию научных открытий и внедрение самых перед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во все сферы жизни. Мы намерены развивать новые производства. Нацелены на создание инженерной школы – работы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уже начаты. Все эти задачи необходимо реализовывать, опираясь на крепкую научную базу. Благодарю всех вас за работу, нацеленность на результат и желаю удач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Наш университет вырос из небольш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училища, открытого почти 75 лет назад. Появление классического вуза было продиктовано большой потребность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пециалистах в самых разных отраслях, развитии научной базы. Нужны бы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кадры для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строительной, в сфере управления и многих других. Но время ставит новые задачи. Эти вызовы стоят и перед нынешним коллективом университета, у которого есть вс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 ними справиться. С особой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и уважением вспоминаем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ученых, которые взяли высокие ориентиры. Также хотел бы поблагодарить губернатора, что он лично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этом заседании. От лица коллектива благодарю за то, что поддерживаете наш университет, участвуете в его развитии, – подчеркнул и.о. ректора СахГУ Александр Самардак.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ручил почетную грамот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иректору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Эльвире Лим.

– Сегодня очень важный день в моей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гда-то в этом зале меня посвящали в студенты, а сегодня я получаю здесь такую высокую награду. Я работаю здесь уже 26 лет – устроилась еще до реорганизации. Вообще университет – это мой второй дом. Меня здесь научили получать знания, дружить, слушать и слышать,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работать, – подчеркнула Эльвира Лим.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 письмом отмечена доцент кафедры теории и методики обучения и воспитания института психологии и педагогики СахГУ Людмила Румянцова.

Кроме того, в рамках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были вручены почетные грамоты 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сотрудникам университета, памятные адреса от ректора сотрудникам и преподавателям, проработавшим в вузе более 40 лет. Поздравить их также пришли областной министр туризма Артем Лазарев, руководитель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ветлана Мирова и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Дмитрий Смекалов.

### Сахалин и Парамушир впервые свяжут прямым пассажирским авиарейсом

Сахалин и Парамушир свяжут прямым пассажирским авиарейсом в 2024 году. Для этого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 авиамаршрут Северо-Курильск – Ноглики – Южно-Сахалинск. Затем, когда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ая полоса на Парамушире будет модернизирована, начнется выполнение прямых рейсов с курильского острова в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Об этом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в ходе рабочего совещания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Улучшение доступности Северных Курил имеет для нас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Сейчас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полностью зависят от вертолета и морского транспорта, поэтому из-за плохой погоды зачастую не могут быстро добраться на Сахалин. Дорога в одну сторону может занимать до недели. Самолет должен во многом решить этот вопрос. Профильным специалистам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организовать прямой авиамаршрут с Парамушира на Сахалин,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состоялся первый в истории пассажирский рейс из Петропавловска-Камчатского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 Полет стал возможен благодаря строительству новой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ы на Парамушире. Рейс выполнили воздушным судном Ан-28, которое может перевозить до 16 пассажиров.

Новая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ая полоса должна снять ряд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приему воздушных судов пассажирского назначения до 19 человек, улучшить регулярное авиасообщение с островом. Время в пути до Петропавловска-Камчатского сократится почти в 1,5 раза.

–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рейсы из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через Ноглики. Затем Парамушир свяжем прямым сообщением с областным центром.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реконструировать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ую полосу. В результате этих работ полоса будет удлинена, – отметил областной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Валерий Спиченко.

Напомним, развивать авиасообщени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ручи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Именно по его поручению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й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создана «Едина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Маршрутная сеть охватывает 262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которых являются труднодоступными.

### Набережная в Охотском кардинально преобразится следующим летом

Одна из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зон отдыха у воды – набережная в селе Охотское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преобразится уже к следующему летнему сезону. На побережье появятся деревянные домики, кафе с видом на море, амфитеатр и новые беседки. Масштабные изменения произойдут благодаря привлечению грантовых средств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нацпроекта, а также средств бизнеса и субсидиям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На развитие сферы туризма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активно привлекают грантовые средства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Туризм и индустрия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РФ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На побережье появятся небольшие деревянные домики, уютное кафе в современном стиле с элементами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зайна и открытой террасой, амфитеатр. Также у воды установят пляжные беседки для отдыха, баню с панорамным остеклением и видом на море, летние бунгалo и гостевой дом, создадут необычные фотозоны. Новая территория станет частью уже существующе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проектов, параллельно реализующихся за счет частных инвестиций и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Это позволит создать единую комфортную современную туристическую зону, ориентированную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й туризм, семейный и детский

отдых, а также на досуг маломобильных граждан.

– На Охотском побережье реализуются сразу три проекта: два частных и один муниципальный. Уже сейчас можно оценить промежуточные результаты работы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На набережной появились перголы с лежаками, кабина для переодевания, качели. В следующем летнем сезоне работы продолжат. Проект грантополучателя также в активной стадии, и он гармонично дополнит созданн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летнем сезоне за счет объединения нескольких инициатив мы получим настоящую морскую визитную карточку Сахалина,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ем Лазарев.

Также министр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работы по обустройству зон отдыха ведутся и в други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обустройство территорий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о. Задачу по созданию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отдыха горожан перед министерством 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ами ставит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ешается она как за счет областных средств, так и за счет грантов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и привлечения добросовестных инвесторов.

### Более 130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олучают помощь проводников здоровья

Количество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получающих помощь проводников здоровья, превысило 130 тысяч человек. При этом в команду медицинских администраторов вступили 642 неравнодушных сахалинца и курильчанина. Они записывают людей к врачу или на обследование, напоминают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изита в поликлинику, помогают решить внештатные ситуации и оказать психологическую поддержку.

– Нам удалось привлечь в эту значимую для остров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аботу почти 650 человек. Это внушительная цифра, которая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в довольно сжатые сроки. Однако количество – не главное. Важно, чтобы администраторы подходили к своему делу с душой, с открытым сердцем. Люди это чувствуют и ценят. А это напрямую влияет на достижение поставленной Президентом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задачи, которая заключается в увеличении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и жизни до 80 лет, – подчеркнул в ходе совещания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в област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были озвучены районы, в которых медицинские администраторы наи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 справляются со своими задачами. Это Курильский, Смирныховский, Долинский и Поронайский городские округа, а такж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отстающих – Анивский,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Томаринский, Охинский и Южно-Курильский районы.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ручил областному минздраву принять меры по повышению эффективности работы проводников здоровья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Перед работой ассистенты проходят обучающие курсы – знакомятся со структурой организаци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и работой в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системах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учатся психологии общения. Многие «проводники» или их родственники сами перенесли серьезные заболевания, поэтому не понаслышке знакомы с проблемами пациентов.

В зоне особого внимания специалистов – пациенты с новообразованиями, а также заболеваниями эндокринной,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ой и пищеварительной систем.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помощь проводника здоровь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зданы горячие линии по следующ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 онкологические заболевания – 89147593080;
- острые нарушения мозгового кровообращения и заболевания сердца – 89147400926, 89621198512;
- эндокринологические патологии – 89625809766.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2023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 본격 진행

## '인공지능 시대, 재외언론의 활로 모색'



▲ (사진) (사)세계한인언론인협회 주최 '2023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이 10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막했다. 【한국(서울)=세언협 공동취재단】 이석수 기자

전 세계 재외동포 한인언론을 대표하는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김명곤. 이하 세언협)가 10월 16일(월) 개막식과 함께 4박 5일간의 국제심포지엄을 시작했다.

'인공지능 시대, 재외언론의 활로 모색'이라는 주제의 이번 심포지엄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자리를 빼앗고 인간윤리를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 시대에 재외언론인들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고 그 활로를 모색해 보는 시간이다.

16일 18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이날 개막식은 재외한인언론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동포 언론인들의 단합을 공고히 하는 자리였다. 이번 대회는 전세계 20개국 32개 도시에서 40여 명의 한인언론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세계한인민주회의수석부의장 임종성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 사단법인 평화 김성곤 이사장, 민화협 이종걸 의장을 비롯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전세계 한인 언론을 대표하는 언론인들의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했다.

세언협 김명곤 회장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 시대, '위기인가 기회인가?'와 같은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피하면 위기이고 맞서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시대에도 어차피 인간이 주인공으로, 클라우드 속에 서성은 '빅 브라더'와 같은 존재인 인공지능에 강력하게 맞대응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지적 문화 확산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인들이 별다른 도덕성과 함께 인공지능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역사는 새로운 도전에 기꺼이 응전한 사람들의 얼굴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협력하고 단결해 함께 헤쳐나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김홍수 세언협 상임고문은 "구한말에 시작한 재외언론은 120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 750만 재외 동포들에게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해 우리 민족의 정체성 유지에 앞장 섰고, 주류 사회와 고국의 가교 역할은 물론 두 문화권의 융성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또한 이민 1세대의 안정화를 기반으로 1.5세대와 2세대들이 주류사회에 나갈수 있도록 발벗고 나선 것도 재외언론의 몫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재외 언론은 재외동포 참정권, 이중국적 문제, 동포청 설립 등과 같은 정책적 이슈가 있을 때 동포사회 여론을 본국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힘써 왔고 특히 주류 사회에서 동포들이 부당 대우를 받고 있을 때에도 언론으로서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언론 본연의 자세를 지키는 것은 언론이 살아갈 길임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며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지난 20년 동안 인적자원부족과 재정적 어려움 등 악조건 속에서도 언론인으로서의 결의와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꿈을 꾸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겸 재외동포위원장)은 "세계 각국에서 지구촌의 소식을 전해주는 한인언론인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행사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재외동포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린다."며 "한인언론인들은 세계 각지에서 재외동포 사회의 여론을 모으고, 재외동포와 고국을 연결해주는 소통창구이자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고 치하했다.

그는 이어 "오늘 국제심포지엄의 주제와 같이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고,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끊임없이 교류하고 공부하며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음에 경의를 표한다."며 "한인 언론인들이 만들어 낸 그간의 성과를 나누고, 재외동포 사회의 더 큰 발전을 위해 결의를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양정숙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뉴스 저작권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며, 인공지능 업체들이 '고품질 뉴스'에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기회로 볼 수 있다."며 "고품질 저널리즘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재외 동포들을 위한 고품질 뉴스를 제공하고,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재외언론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 또한 정무위 위원으로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재외 동포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법안 및 정책지원 발걸을 위해 힘쓰고, 재외 동포들의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은 특별히 연합뉴스에서 25년간 재외동포 분야를 전담 취재해온 왕길환(59) 동포·다문화 기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왕 기자는 1999년 1월 연합뉴스 동포·다문화부의 전신인 민족뉴스부에 입사한 이래 재외동포 관련 취재만 1만4천여 건의 기사를 쓸 정도로 재외동포와는 뗄려야 뗄 수 없는 재외동포 전담 기자로 이름을 날렸고, 마침 이 날부로 명예퇴직했다.

김명곤 회장은 "왕 기자는 재외동포 전문 기자로 활약하며 2002년 세언협의 발족을 발벗고 나서서 도왔고, 지금까지 협회의 융성과 재외언론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치하했고 왕 기자는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각오로 쓰는 기사 하나하나가 역사가 된다는 생각으로 일했다"며 "앞으로도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과 위상 제고를 위해 계속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16일(월)개막식에 앞서 언론인들은 서울시민청 (서울시청 지하2층) '워크숍룸'에서 '인공지능시대, 재외언론의 활로 모색'이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인공지능, 뉴미디어시대에 재외언론의 향방과 뉴미디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다.

1부, 강연회에서는 "AI시대의 경제, 사회, 문화와 미디어의 방향"이란 주제로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연에 이어 "광고 및 미디어 산업분야의 인공지능(AI) 활용전략"을 주제로 차영란 교수(수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강연했고, 최은창 MIT테크놀로지 리뷰 편집위원이 "생성형 AI 시대에 대비할 필요성"에 대해 소개했다.

2부 "재외언론의 뉴미디어 활용 사례"란 주제로 재외언론인들이 패널로 참가해 각 언론사 사례를 발표했다. (이덕일 캐나다 밴쿠버 KTV 대표, 조연숙 데일리 인도네시아 편집장, 이석수 프랑스주 대표)

계속해서 17일에는 전남 함평군을 방문하고, 18일 전북 고창, 19일 전북 군산시를 돌며 문화유적과 지역축제를 취재하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고국의 맛과 멋을 두루 경험하고 지자체와 세계 한인 언론매체와의 공동사업과 홍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모든 취재투어를 마치고 20일에는 군산에서 총회 후, 오후에 서울에서 해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재외동포청, 함평군, 고창군, 군산시, 전남문화관광재단,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세계한인네트워크,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단법인 평화, 재외동포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사이버외교사절단반크, 글로벌정보고재단 등이 후원했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지구촌의 소식을 발로 뛰어 전하는, 세계 40여 개국 180여 개 동포 매체가 회원사로 가입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체다. 2002년 제1회 재외동포기자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세계한인언론인대회' 및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며 국내·외 재외동포와 동포언론의 접점을 넓히고 모국 대한민국과 소통하며 750만 재외동포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한국(서울)=세언협공동취재단】 이석수 기자

##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На кадрах видно, как косилапый, не торопясь, идет по улице. За ним следуют автомобили и два теленка. Местные жители стали переживать за своих животных.

### 학교에 바이애슬론: 사할린주에 새로운 사회적 기획 시작

곧 일반 교육기관들에서 <학교에 바이애슬론> 사회적 기획이 시행된다고 주 스포츠부의 아르쎬 포드쉬발로브 장관이 텔레그램 방송을 통해 전했다.

'러시아는 스포츠 강국' 11회 국제 포럼에서 기획을 전개 하도록 했다.

"조만간 55개의 스포츠 장비 세트가 우리에게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앞으로 협약의 일환으로 스포츠에서 거론되는 장비들이 공급되는데 이중적 해결 방식으로 50%는 구매하고 나머지 50%는 우리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고 장관이 말했다.

앞서 아르쎬 포드쉬발로브 장관은 동계 스포츠 종목 스포츠 학교 미하일 삼수트지노브 교장과 만나 공동으로 총기 장비 공급 업체자와 만나 작동을 시험하고,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 Биатлон в школу: На Сахалине запуская новый социальный проек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в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будет запущен социальный проект «Биатлон в школу». Об этом в своем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сообщил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региона Артем Подшивалов. Старт запуску дал XI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Россия — спортивная держава».

-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м безвозмездно предоставят 55 комплектов спортооборудования. В дальнейшем, в рамках соглашения, будем приобретать оборудование, как говорят в спорте, в двойном зачете — покупаем на 50%, остальные 50% — нам отдают бесплатно,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Ранее Артем Подшивалов, совместно с директором спортшколы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Михаилом Шамсутдиновым, встретился с поставщиком стрелк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проверил его в действии и договорился о поставках.

### 러시아 국민들, '고스우슬루기' 이용 위한 2가지 요소 필수인증 거쳐야

'고스우슬루기(국가서비스)' 서비스 이용을 위한 2가지 요소 필수인증이 신규 서비스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러시아 국민들에게 적용된다. 이에 대한 정부 법령이 규정되었다.

10월1일부터는 '고스우슬루기'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한 2가지 요소의 필수인증이 신규 이용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

정을 복구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서비스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로그인과 암호를 입력하고, 추가 인증 방법으로 SMS 코드와 일회성 코드로 작업하기 위한 앱이 제공하는 코드, 또는사전 동의 속에 생체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고스우슬루기' 서비스 이용자는 직접 2가지 요소의 필수 인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언론이 전했다.

### Двухфакторная аутентификация на «Госуслугах» стала обязательной для россиян

Двухфакторная аутентификация для входа на «Госуслуги» стала обязательной для всех россиян, а не только для новых пользователей. Об этом указано в постановле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 1 октября двухфакторная аутентификация для входа на «Госуслуги» стала обязательной для новых пользователей, а также для тех, кто восстановил свою страницу.

Для входа на сайт кроме ввода логина и пароля теперь будет требовать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способ подтверждения: это либо код из смс, либо код из приложения для работы с одноразовыми кодами либо биометрия при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м согласии.

Пользователь может выбрать способ двухфакторной аутентификации сам, отмечает РИА Новости.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21기 민주평통 러시아 동부협의회 출범회 개최

지난 21일(토) 블라디보스토크 시 '메가호텔' 연회장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러시아 동부협의회 출범회와 정기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귀빈, 자문위원, 고문 등 50여 명 한 자리에 모였다.



개회사를 한 러시아 동부협의회 회장인 "저는 통일은 '우리 모두가 역사로부터 부여받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통일은 남북이 다시 하나되어 민족사적 불행은 치유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의 기틀이 되고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협의회는 모든 자문위원님과 고문님들이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에도 이익이 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명하는 일을 함으로써 러시아 내에서의 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 지지 기반 확립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였다.

주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하병규 총영사는 최근 격변기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불확실성이 큰 시기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21기 민주평통 러시아동부협의회 자문위원 및 고문들께 각자의 위치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선도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 21기 자문위원 및 고문 여러분 모두 뜻깊고 보람 있는 책임기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라며 축사를 마쳤다.

이날 자문위원들과 고문들에게 위촉장, 간부 위원들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하고, 21기 첫 정기회의를 갖고, 지역 협의회 임원을 소개하며 운영 방향과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21기 민주평통 러시아 동부협의회(시베리아, 극동지역 등 포함) 자문위원 20명, 고문 31명이고 사할린에는 고문으로 7명(김춘자, 김홍지, 박 블라디미르, 박순옥, 배 워토리아, 오진하, 이오기)이 선정되었다.

(본사 기자)

(사진: 민주평통 러시아동부협의회 제공)

사할린 주 위생 및 역학 센터의 수석 의사 임 엘레나 아나톨리예브나의 부친 이 테호(리 아나톨리 이와노비츠) 씨가 2023년 10월 17일 사할린주 우글레고르스크 구역에서 82세를 일기로 별세하였음과 관련하여 비애에 젖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사할린 주 위생 및 역학 센터 사원 일동

## Ушел из жизни почетный работник совхоза «Ударный» Анатолий Ли

На 82 году ушел из жизни преданный работник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Ли Анатолий Иванович.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и Анатолий Иванович родился в 1942 году.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института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Агрономия» в 1971 году, переехал на Сахалин и устроился в молочно-овощной совхоз «Ударный»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Начинал свой трудовой путь Анатолий Иванович в должности старшего агронома первого отделения, а уже через год был переведен на должность главного агронома. В период работы совмещал должности главного инженера-гидротехника и заместителя директора по кормопроизводству.

За счет внедрения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Анатолий Ли постоянно увеличивал качественные и количественные показатели урожайности и заготовок. Урожайность картофеля получилось увеличить в полтора раза. Предприятие занимало первое место среди совхозов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по сбору капусты и моркови.

Более 25 лет своей жизни Анатолий Иванович посвятил сельскому хозяйству. За добросовестный труд и высокие показатели в деятельности неоднократно награждался Почетными грамотами и пользовался авторитетом у коллег.

##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4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646 руб. 9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사할린한국교육원 30주년 맞아 문예콩쿠르 공모

2023년 12월 10일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원 30주년 되는 날이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예콩쿠르를 개최합니다.

- 공모대상: 사할린 주민 및 러시아 국민
- 공모부문: 글짓기, 체험수기 (한국어, 러시아어)
- 공모주제: 한민족의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주제는 '한국교육원이 내 삶에 준 변화', '내 삶에 한국어(한민족문화)어가 심어준 변화', '한국 문화의 매력'
- 공모기간: 2023년 11월 중순까지.
- 발표 및 시상식: 2023년 12월 8일(금)
- 시상: 상장과 상품
- 주최: 새고려신문사, 사할린한국교육원, 사할린주한국어교사협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콩쿠르 자료들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또는 vika131065@gmail.com 로 보내주시거나 신문사 사무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콩쿠르조직위원회

## Конкурс эссе на тему «Язык - это путешествие в новую жизнь!»

В рамках проведения Года педагога и наставника и в честь 30-летия со дня основания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совместно с Ассоциацией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РООСК), при поддержке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тему «Язык - это путешествие в новую жизнь!».

Работы могут быть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Автор должен рассказать читателям о том, как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зменило его жизнь и характер; какую роль в жизни автора сыграл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ка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ривлекают и раскрывают загадку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ноября 2023 г.

Необходимо указать тему эссе,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учащимся),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участник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 адресу: 69302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или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по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vika131065@gmail.com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43-59-80, 43-67-85

Оргкомитет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